



문화공간 김넷과 갤러리에서 '양림동 판타블로' 연작을 전시하는 이민 작가.

판화로 책으로... 양림동 골목 풍경

이민 작가 '양림동 판타블로' 전
23일~3월18일 김넷과... 23일 연작 보고회
판화 작품 99점, 짧은 글 담은 책도 펴내

'미술작품과 책으로 만나는 별을 품은 숲, 양림동.'

석양이 내려앉은 양림교회, 고택 이장우 가옥으로 가는 길, 낡은 수레가 보이는 누군가의 집 앞,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평간마을.

양림동 골목에서 만나는 풍경은 정겹다. 판화처럼도 회화처럼도 보이는 작품 속의 양림동은 특히 화사한 색감과 어우러져 따스한 느낌을 전한다.

이민 판화작가가 양림동을 테마로 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연다. 또 양림동 판화 연작 99점과 단상을 담은 '양림동 판타블로-이민 작가의 그림으로 세상 읽기' (스타북스)도 함께 펴냈다.

23일부터 3월18일까지 문화예술공간 김넷과에서 열리는 전시 '양림동 판타블로'에서는 양림동과 제주도 풍광을 담은 작품 38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 가운데는 사직도서관, 평간마을처럼 양림동을 걷다보면 여전히 만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양림버거와 미광의상실 등 지금은 없어져 오직 '그림' 안에만 존재하는 공간들도 보인다. 작품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라져 버린 현장을 담아 내며 '시간 기록자' 역할까지 하는 셈이다.

화려한 색상이 돋보이는 전시작들은 거칠거칠하고 숨결이 살아있는 판화의 매력을 살림과 동시에

기존 판화보다 색 표현이 자유로워 다채롭고 명징한 색감을 얻어낸 작품들이다. 전시작들은 이 작가가 실용신안까지 마친 '판타블로' (Pan Tableau) 기법으로 제작됐다. 판화와 서양화의 기법을 결합한 것으로, 그는 '우드라 보드판'에 프레스를 쓰지 않고 손의 힘과 물리관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2021년 9월 완성된 99점의 양림동 연작은 자연이 많다. 26년만에 고향 광주의 양림미술관에서 전시 기회를 갖게 된 그는 전시를 준비하는 9개월 동안 수차례 양림동을 찾아 자신만의 시선으로 골목 풍경 풍경을 담아냈다.

전시성공리에 마친 그는 '나눔'에 대해 생각해왔고 양림동 연작을 그려 판매대금 전액을 기부하자 마음 먹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1억원을 미혼모시설 등에 기부,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스 회원(1억원 이상 기부자)이 됐다.

이번에 나온 '양림동 판타블로'는 양림동을 찾은 이들이 여행 후에도 책을 통해 '두고 두고' 양



림동을 추억했다면 하는 마음에서 출간했다. 또 책 말미에는 작품 구입으로 '나눔'에 동참한 이들의 이름도 함께 실어 고마움도 전했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각각의 도시에 대해 소개하는 책 등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양림동을 찾은 이들이 먹거리를 즐기고 볼거리를 즐기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오랫동안 양림동을 기억하고 그 추억을 꺼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가가 이증섭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제작하기 시작한 제주도 연작 판화도 동시에 선보이고 있다. 전시작은 송일준 전 MBC PD와 함께 쓴 책 '제주도 랩스'에도 실렸다.

이 작가는 내년 서울 인사동에서 '제주도' 연작 전시회를 진행할 후 간단한 감상과 그림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후 도시 한 곳을 더 선정해 작업하고 도시 판화 연작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이 작가는 대학 2학년 때부터 판화를 부전공하며 관심을 가졌고 일본 명문 다마 미술대학원에서 판화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에서 인기 작가로 주목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친 이 작가는 전국무등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요코하마 미술관, 호암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23일 오후 5시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양림동 연작'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대중연대기' 1차분 6권 발간... 27일 출판기념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사상철학을 담은 '김대중연대기'가 발간됐다. 총 25권 내외로 발간되는 전집의 1차분 6권으로 27일 출판기념회도 열린다.

김대중대통령탄신백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로 기획된 '김대중연대기'는 한국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의 역사적인 삶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아카이빙 작업이다. 책은 김 대통령의 탄생 일인 1923년 12월 3일(음력) 무렵부터 서거한 2009년 8월 18일까지의 일생을 시대사와 함께 기록했다.

책을 엮은 이는 김대중추모사업회 정진백 회장이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박정희 사망 이후 전두환 군사반란 시기에 겪은 고통과 민주화투쟁을 담은 1979년~1987, 대통령 재임 기간을 다룬 1997년~2003년 시기의 여섯 권으로 3920쪽에 달한다. 나머지 1924년~1978년, 1988년~1996년, 2004년~2009년 시기를 다룬 책도 조만간 출판될 예정이다.

김대중추모사업회와 김대중탄신백주년기념만민회의는 27일 오후6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황정숙이나은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출판기념식에서는 배다지 부산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 역사적 삶과 사상



손 맞잡은 김대중(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의 서평, 편자인 정진백 김대중추모사업회장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인성교수, 광주경실련 오주섭사무처장이 함께 하는 북콘서트도 열린다. 또 가객 정용주, 소프라노 김선희, 가수 천등이 출연해 '여기가 어디냐', '당신은 우리입니다', '봄날은 간다' 등을 들려준다.

한편 추모사업회는 지금까지 김대중민주평화아카데미, 김대중대통령추모서화전과 음악회, 김대중대통령헌정음반제작, 김대중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했으며 앞으로 김대중다큐영화, 김대중 연극, 서시음악회 등 탄신백주년 기념행사도 준비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밥'과 '별' 사이... '꿈'과 '현실' 사이

박광영 시인 '발자국 사이로 빠져나가는 시간' 펴내

시는 뭔가 어렵고 심오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시에 대한 단상이 그렇다.

그러나 일상의 말처럼 쉽고 평이한 시도 있다. 난해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로 깊은 뜻과 사유를 담고 있는 작품 말이다.

광주 출신 박광영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발자국 사이로 빠져나가는 시간' (문학들)을 펴냈다.

작품집에는 모두 6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으며 간결하면서도 압축적인 게 특징이다. 특히 화자의 시선은 '밥'과 '별' 사이의 거리를 오간다는 데 있다. 사람살이가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잡는 일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휴탕물 위에서 하늘은 파랗다", "눈물에 하늘이 담겨 있었으니/ 그때 별을 박았던 건 아닐까", "밥과 별이 여태 다른 줄 알았다"에서 보듯 시 '밥과 별과 시'는 그런 현실과 이상 사이를 줄타기하는 '송고한' 과정임을 보여준다.

눈에 모를 심는 것을 '하늘에 별을 심는 행위'로 상징한 비유는 신선하면서도 깊다. 떠나면 하늘만을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별을 심음으로써 화자는

그렇게 이상과 현실을 아우른다.

또 다른 시 '문득, 유월'도 이색적인 작품이다. "석류알처럼 반짝이던// 그이의 고른 이를 생각한다// 문득, // 유월의 저무는 무렵"에선 삶의 의미를 어느 정도 터득한 중장년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다. 아주 짧은 시는 그러나 너무도 많은 해석과 상상거리를 제공한다. '그이'는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떠나간 친구일 수도, 뜻을 같이 했던 동료일 수도 있다.

김규성 시인은 "유월은 단순한 '시간기호'가 아니라 "저무는 무렵"의 지시어로 6월이 지닌 기억/추억을 현재로 소환하는 통시적 '시간장치'이다"고 평한다.

한편 박광영 시인은 2014년 계간 '시와정신'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그리운 만큼의 거리'와 수필집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를 펴냈다. 2019년 '시와정신' 시인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물질·역사·동시대' 문명의 파편

中 류관유 기획초대전, 3월 4일까지 은암미술관

현대 중국화의 '오늘'을 만나.

은암미술관(관장 채중기)이 오는 3월 4일까지 중국 작가 류관유 기획초대전을 개최한다.

'문명의 파편(文明的碎片)'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류 작가는 중국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존재' 연작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중국화는 먹의 농담을 이용해 채색을 가하지 않고 그려지는 게 특징이다. 류 작가는 전통을 기반으로 수묵이 담고 있는 심오한 정신성을 지키며 재료나 매체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신의 작업 세계를 만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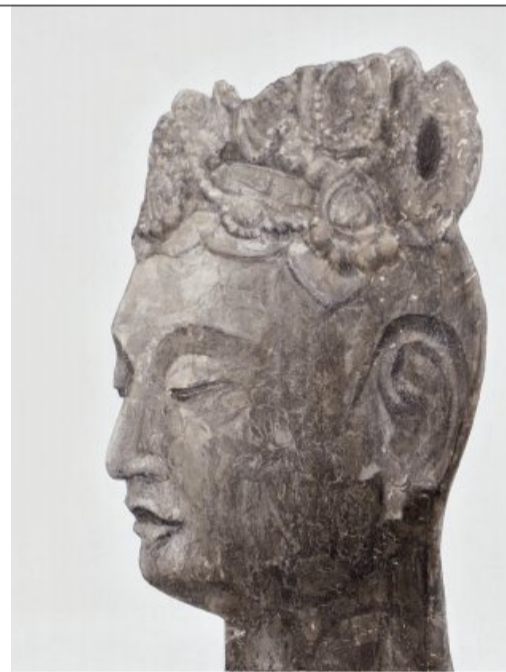
그의 작업 소재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조각상과 불상이다. 물질 문명, 역사 문명, 동시대 문명에 초점을 맞춰 작업하는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전통적 불상은 파괴와 변화, 고독함을 드러내며 역사

의 변화와 세월을 이야기한다.

작가는 철학적 고찰을 통해 전통적인 기호와 이미지를 재해석한 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수묵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한다.

미술관 관계자는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불상은 과거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거쳐 전통과 함께 현대적 형태로 존재하며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한다.

중국 산둥성 출신인 류 작가는 쓰촨미술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대학에서 중국화 종합예술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남대학 미술대학 재직중이며 산둥 웨이하이미술관, 충칭미술관, 은암미술관 등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여했다.



'존재NO.46'

초대일시 3월 2일 오후 5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White Day'에 클래식 선물

광주시향, 3월 14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공연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만나.'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은 오는 3월 14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공연장에서 정기연주회 'White Day'를 개최한다.

예술감독 홍석원의 지휘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나비부인', '수녀 안젤리카'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 후안' 등에서 선곡한 사랑의 음악을 들려준다.

눈에 띄는 레퍼토리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의 1막 피날레와 오페라 '나비부인'의 사랑의 이중창이다. 협연자로 나서는 소프라노 손지혜는

빌바오 국제성악콩쿠르, 뮌헨 ARD 콩쿠르 등에서 수상한 후 프랑스 파리, 리모주극장, 스웨덴 말뫼 오페라극장 등을 거쳐 2018년부터 독일 도르트문트 극장 전속 가수로 활동중이다.

스위스 제네바 콩쿠르와 프랑스 마르세이 콩쿠르에서 우승한 테너 국윤중은 독일 레겐스부르크 시립 가극장에서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의 폴리오네 역으로 데뷔했으며 독일 하노버 극장을 거쳐 비엔나 폭스오퍼의 간판 주역 가수로 활동했다.

공연에서는 또 이상적인 여인을 찾아 헤매는 돈



테너 국윤중

후안의 희망과 좌절, 영웅적 승리가 펼쳐지는 교향시 '돈 후안'과 차이콥스키의 발레음악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음곡' 등을 들려준다.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 예매. 입장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프라노 손지혜

전남문화재단, 미술작가 창작 지원 임대 미술작품 공모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은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전남 미술작가 창작 지원을 위해 임대 미술작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작가들의 미술작품을 공공, 민간 시설에 임대해 일상 속 예술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작가에게 작품 임대료 수익을 지급,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남 도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전남에서 출생 또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전남 출신 작가들 모두 이번 공모에 참여 가능하며,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장애예술가의 작품은 우대하여 선정한다.

모집부분은 서양화, 동양화, 서예 등 평면 시각 예술 작품이 대상이며, 50호 이상작품만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남도사이버갤러리 누리집'에서 작가회원 가입 후 프로필과 작품을 등록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공모에 선정된 미술작가들에게는 재단이 추진하는 미술품 경매와 국내외 아트페어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